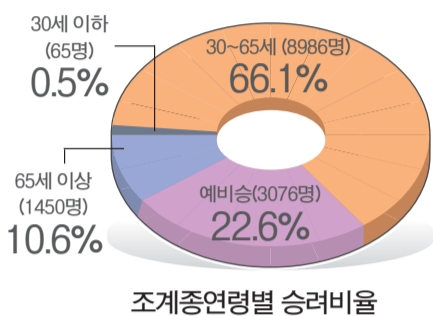


사찰 1곳당 스님 3.7명

도심 포교인력 부족 심각...대책마련 절실

2007 통계로 보는 조계종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4월 15일 <불기2551년 통계자료집>을 통해 종단 승려 1만3576명과 사찰 2444곳 등 종단 내 주요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종단 승려 수는 전년대비 282명(2.1%), 사찰은 51곳(2.1%) 증가했다. 5년 전 통계와 비교해보면 승려는 1146명(9.2%), 사찰은 197곳(8.8%) 늘어나 자칫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웃종교의 통계치와 비교해보면 종단 인력 현황이 그리 밝지 못하다는 진단을 내리게 된다. 통계자료집을 근거로 조계종의 현황을 알아봤다.



스님·사찰수 5년간 9% 증가
도심사찰수 타종교 비해 열세

여(女) 행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 기초교육을 수료한 여행자는 110명으로, 2006년 134명 대비 18.6% 감소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기획실 관계자는 "최근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늘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 때문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으나 정확한 원인은 밝히지 못했다.

가톨릭·개신교의 통계자료에 비추어 인구 대비 종교시설 수도 크게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가톨릭은 분당 1447곳과 공소(사제)가 상주하지 않는 작은 교회) 1115곳을 합쳐 전국 2562곳의 교회가 있다. 개신교는 종파를 모두 합치면 4만191곳의 교회가 등록되어 있다.

톨릭과 개신교 교회 대부분이 대도시나 도시에 위치한 것과 달리 도심에 위치한 사찰 수가 적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의 경우 조계종 사찰은 186곳인데 반해 개신교 교회는 7600여 곳으로 집계됐다. 특별시와 광역시 전체를 놓고 볼 때도 조계종 사찰은 600여 곳, 개신교 교회는 1만5500여 곳에 달한다.

이번 조계종 통계자료집 결과에 전문가들은 도심포교의 공백을 크게 우려하는 분위기다. 포교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조계종 기획실 김판동 팀장은 "가톨릭의 경우 전체 1만2000여 명의 성직자 중 8200여 명의 수녀와 수사가 신부들 도와 선교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불교계도 포교사를 좀 더 적극적인 포교주체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포교사 수는 2623명으로 작년 대비 10.3% 증가했지만 일선 사찰에서는 "전문 인력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이 현실이다. 도심포교의 해법이 포교사의 효율적인 활용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통계자료에 기초한 포교 정책 분석 및 방향성 제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조계종 총무원의 한 교역직스님은 "천주교는 1907년부터 매년 <한국 천주교회 통계>를 내 선교정책에 반영해왔다"면서 "조계종도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통계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수령 · 조동섭 기자



"부처님께 올릴 등 만들어요"

부처님오신날과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본격적인 불행행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일문)는 4월 16일 나날의 등축제 '효를 가는 길'을 개최했다. 5월 21일까지 열리는 이번 축제는 다양한 효 실천이벤트와 불행행사로 진행된다. 축제 첫째 날인 16일 서울노인복지센터 내 중앙공원에서 지역 어르신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부처님께 올릴 전통등을 손수 만들어 축제의 5월을 준비하고 있다.

"연등축제 문화재 지정 검토를"

지관 스님, 이건무 문화재청장에 요청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4월 16일 총무원을 예방한 이건무 문화재청장에게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의 문화재 지정 검토를 요청했다.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집결실에서 이뤄진 환담에서 지관 스님은 "연등축제는 1700년간 전승되어온 우리의 전통문화"라며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화부장 수경 스님도 "이번 주에 연등축제의 역사적 가치를 평가하는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라며 "문화재 지정에 필요한 내용을 문화재청으로 보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관 스님은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사찰의 관람료 징수 문제는 적절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문화

재정을 비롯한 정부에서도 문화재 보존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청장은 "단체적이지만 목조건축재를 보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며 "종단에서도 문화재 보존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날 환담에는 재무부장 장적 스님, 문화부장 수경 스님, 사서실장 심경 스님, 불교중앙박물관장 범하 스님과 송민선 문화재청 동산문화재과장이 배석했다. 여수령 기자

경허·만공 스님 사상 조명

4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학술세미나

한말 격동기 속에서 한국불교의 수행풍토를 일신하고 간화선 증흥의 초석을 다진 경허·만공 스님에 대한 학술세미나가 열린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현종)와 덕숭총림 수덕사(주지 응산)는 '경허·만공의 선풍과 법맥'을 주제로 4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학술세미나를 연다. 학술세미나는 설장 스님(덕숭총림

수좌)의 '경허·만공의 선풍과 법맥을 되돌아보며'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과 최병현 교수(서울대)의 '근대 한국불교의 선풍 진작과 덕숭총림', 고영선 교수(동국대)의 '경허의 행장과 수행기공', 변희욱(서울대 강사)씨의 '경허의 선사상에 대한 재조명', 김경진 교수(진각대)의 '근대 한국불교에서 만공의 활동', 황인규 교수(동국대)의 '근대 비구니의 동향과 덕숭총림

비구니들', 오경후 선임연구원(선리 연구원)의 '경허·만공의 법맥과 한국불교에 미친 영향' 등 7편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경허 스님은 1899년 해인사 정혜결사를 필두로 통도사, 범어사, 화엄사, 송광사 등에서 수선결사를 조직해 영·호남 일대에 간화선풍을 드날린 선지식이다. 경허 스님의 법맥을 이은 만공 스님 역시 40여년간 덕

숭산에 주석하면서 수많은 남자를 길러낸 종장이다. 정혜사, 견성암, 간월암 중창과 1920년대 초 선학원 설립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만공 스님은 선우공제회 운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한국불교 발전과 간화선 증흥에 기여했다.

조계종 불학연구소 서재영 선임연구원은 "조사에 대한 연구지원이 부재한 현실에서 교구단위 본사가 조사에 대한 연구를 지원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그동안 단편적으로 진행됐던 경허·만공 스님의 행장과 업적을 한국불교사의 흐름 속에 종합적으로 회향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출로서자

허허당의 세상만사

역겹세월 둘러매고
차욕 차욕 쌓던
결을결을 걸음
할 일 없어 우뚝 선자리
부처도 몰라보고
조사도 몰라보네.
어이하여 걸었던고
되물어보니
공연히 한세월 걸었다하네.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 취급업무 ◆
민사·형사
가사·행정

법률사무소 서안
전 회 031)387-5400 | 팩 031)387-5409
후대본 010-7504-4521 (경평화 변호사)
010-535-0686 (장영민 변호사)
010-4488-3740 (김민서 변호사)

장애인의 날 특집 ▶9면
봄철 알레르기 비염 ▶18면

성스러워야 할 관불 관육 의식에

이제 향은 그만 부러뜨리십시오 !!

능인향당은...

인연이란 이름으로 다가올 미래의 융화사회에 최상의 공양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여러 나라의 전문가들과 교류하여 연구 노력하는 회사입니다. 능인향당은 인체에 가장 해가 적고 순수한 원향을 제조하여 2007년부터 국내에서도 시판하였으며 참다운 공양물의 으뜸을 인정받는 회사입니다. 더욱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침향을 원산지인 비나 등급을 그대로 적용하여 공예품인 염주부터 복장공양물의 최고 결정체인 기념 등급까지 16등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향료 관련 국제특허 3종과 불교용품에 관한 국내 특허를 취득하였으며 인도와 캄보디아 등 불교의 성지를 돌며 구한 원자재로 불가의 최고 공양물만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능인향당은 불교문화의 일환으로, 능인향당의 고도의 향료 기술이 축적된 7년간 연구의 산물입니다. 여러 불교성지를 돌면서 각 나라의 큰 스님들과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관불 의식의 재료를 조사하고 연구한 끝에 부처님 재가시부터 내려오던 관불의 주 재료인 침향, 백단, 전단, 자단, 천단 등 불가의 오만향과 들장미와 백리향 등 57가지의 꽃에서 향료를 추출하여 국내 최초로 청정수에 희석하여 사용하는 오색, 오향의 관불, 관육의식 전용 향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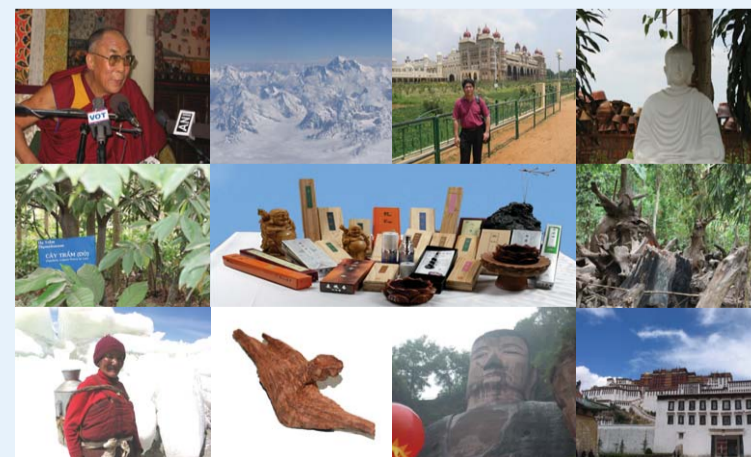
灌佛水香
관불수향

청정수에 2~3방울만...
(불가 최초 물에 타서 쓰는 관불 관육 전용 향수)



관불수향(약 20ml 50회 정도 사용량)
가격: 120,000원

관불수향은 피부 보호 기능이 뛰어난 잔디과 침향이 주 재료이므로 따로 스킨 등을 사용하지 않아도 피부 보습 효과와 아로마 요법을 동시에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관불수향 출시 기념행사 1>

초파일 이전에 관불수향을 주문하시는 스님께서는 능인향당의 대표향인 능인향(12,000원) 1통과 침향선향의 샘플을 더 보내드립니다.

<관불수향 출시 기념행사 2>

능인향의 시향행사를 실시합니다. 초파일 이전에 전화를 주시는 분들께 능인향의 샘플을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